

http://dx.doi.org/10.17703/JCCT.2019.5.4.37

JCCT 2019-11-05

사회적 재난에 투입된 군 병력들의 고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철도파견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asures to improve the difficulties of military personnel in social disasters *

- Focusing on the case of a railway dispatch -

윤보연**, 남궁승필***, 박상혁****

Bo-Yeon Yoon**, Seung-pil Namgoong***, Sang-Hyuk Park****

요약 본 연구는 국가재난 사태에서의 군의 역할이 포괄적 안보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새삼 떠오르고 있고, 특히 포괄적 안보 측면에서 군의 역할 증대 방안으로 국가재난 유형별 지원 중 사회적 재난에 따른 여러 지원 요소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다. 또한, 국가재난 사태 관련 군 지원 사례 중 가장 오랜 기간 임무 수행 했던 2016년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 파업 기간(72일)을 사례로 수도권 전동철(1·3·4호선) 대체기관사로 투입되었던 군 병력(상·원사급 부사관)에 대한 관찰과 면담 등을 통하여 임무 수행 간 애로사항 등 여러 제반 사항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차후 지원 임무 시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통한 국가위기 해소 및 대군 신뢰도 향상에 대한 기대가 그 목적이다.

주요어 : 군 병력, 군대, 사회재난, 기관사, 철도

Abstract The following study, as the importance of military role in a national disaster is emerging as a part of comprehensive security, there has been a number of elements of social disaster-related support in support of each type of national disaster aimed to improve the military's role towards comprehensive security but there has been no regular study of this topic.

The poin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various aspects and hardships during the mission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uture support missions by observing and interviewing the military personnel which substituted the role of train drivers in the Seoul Metro in 2016, when the Korean Railroad Corporation [KORAIL] Workers Union was on strike [72 days] which is the longest period of a national disaster requiring military assistance.

Key words : Military power, Military, Society disaster, Engine officer, Railway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 변화와 사회적 요인, 특히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국가재난 사태에서의 군의 역할이 포괄적 안보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새삼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장 중심의 근대화를 통해 농촌에서

*이 논문은 윤보연의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9) 연구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 작성한 논문임
**정회원, 대한민국 육군 (제1저자)
***정회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정회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공동저자)
접수일: 2019년 9월 3일, 수정완료일: 2019년 10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7일

Received: September 03, 2019 / Revised: October 02, 2019
Accepted: October 07, 2019
*Corresponding Author: cocopalm97@hanmail.net
Dept. of Military science, Wooseok University Univ, Korea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밀집화된 도시화로 인해 점차 각종 사고 및 재난이 대형화 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포괄적 안보 개념을 바탕으로 재난·안전 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협정을 2005년 '관·구 재난 협정서'를 체결하여 평상시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통합훈련(민·관·군)을 시행하여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각종 대민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사고 수습에만 전념했던 이전과는 달리 현재 정부 주도 하, 우리 군은 사고 예방 및 적극적인 재난대비태세 유지를 통해 국민을 위한 군대로 탈바꿈해 나아가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군의 재난지원에 대해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국가재난 사태의 일환으로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군 지원 사례 중, 한국철도공사 파업기간(72일)에 투입된 군 대체 기관사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투입 전부터, 발생한 부대 업무 및 개인적 제한 사항과 파업 지원 기간동안 임무수행에 있어 각종 개인 및 가정사의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요인들이 장기간 철도 대체기관사 지원 임무로 누적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체계적인 대체 기관사 매뉴얼 숙지 부족과 전동차 운행에 있어 각종 제한사항 등으로 최초 투입 시부터 효과적인 대처능력 미흡으로 각종 언론매체의 부정적인 기사보도와 함께 여론형성으로 인해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 병력들의 노고가 많은 부분에서 희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자는 국가재난사태에 직접 투입된 당사자이자 관찰자 입장에서 군 병력들의 심리적 갈등 요소와 애로사항들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투입된 군 병력의 심리적 상태와 임무수행 관련 업적 등 실제 관련 담당자 및 지원 병력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임무수행 매트릭스를 제안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국가재난 상황간 군에서의 지원 가능한 인적·물적 요소 중 특히, 무형적인 인적부분에서 사회적 재난 임무 수행 지원시 군 대체 기관사들의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통해 국가적 위기 해소에 실행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안내서 역할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재난의 개념

인류의 탄생과 생존 아래서 재난은 인류와 항상 같이 있었으며,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인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전쟁과 더불어 재난으로 인해 인류의 문명과 역사는 후퇴하기도 하였고, 재산과 생명, 심지어는 삶의 터전까지도 훼손당하는 시련도 있었지만, 인류는 수 없이 많은 재난에 굴하지 않고 지속해서 문명의 번영을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세계 여러 곳의 지각변동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의 규모와 발생 빈도는 인류의 역사상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에 의한 사회적 부정부패 등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적 재난이 점차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이 연계되어 발생하는 복합적인 재난은 인류의 생존 및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재난의 현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면 UN 재해경감 국제전략기구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재난은 물적, 인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와 영향을 초래하는 취약성과 역량의 요인으로 결합한 위험한 사건으로 인하여 커뮤니티 혹은 사회 기능의 심각한 단절이라 하였으며, 더 나아가 미국연방 재난관리청에서는 재난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일상적 관리 절차로 대응할 수 없는 막대한 규모의 물적 및 인적 손해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따라서 민간과 정부 조직의 체계적이고 즉시적인 효과를 대처하는 사태라고 규정되었다[2].

2. 사회적 재난 개념

재난의 개념은 현대사회의 변화속도와 원인의 다양성 그리고 환경변화로 인해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되어 왔으며, 현대사회 이전에는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재난으로 인식하였고, 최근에는 다양한 원인과 환경변화를 포함한 인위적 요인에 의한 대형

사고도 재난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3월 11일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서 재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재방사, 환경오염사고 등 그 밖의 유사한 사고로 인한 피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체제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3]. 결국, 사회적 재난의 개념을 정의하면 기존의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의 개념을 통합하고 노동단체의 파업 등에 따른 사회 전반에 걸쳐 기능이 마비되는 사회적 재난까지도 포함하여 사회적 재난의 개념을 포괄적·확장적으로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4].

3. 사회적 재난 사례

2016년 한국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 확대가 포함된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반대하고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군 대체기관사(147명), 군 대체차장(300명) 등 군 대체인력 총 인력(447명)을 국방부에 지원 요청하였다. 실제 2016년 철도파업 기간 중, 117명의 군 대체 기관사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각 군별로는 육군 77명(65.8%), 공군 16명(13.7%), 해군 11명(9.4%), 국직 13명(11.1%)의 군 인력들이 군 대체 기관사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철도파업의 사례는 시기적절 2000년 이후, 철도파업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파업이 거듭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파업 기간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16년 9월 27일부터 시작된 한국철도공사 파업은 역대 최장기(72일)로 과거, 2009년 철도파업의 최장 기록(23일)의 3배가 넘는 기간이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16년 철도파업으로 인해 직접적 손실액은 약 989억원이며, 파업 기간에 노조원들의 1인당 추정 손실액은 평균 약 1,174만원 이라고 발표하였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논문은 사회적 재난에 지원된 군 병력들의 고충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발전 방향과 실행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안내서 역할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회적 재난 중, 국가기반체제 마비 지원 사례인 '철도파업'의 사례를 통한 연구의 문제를 제기하여 실제, 철도파업에 동원된 군 병력들의 대체 기관사 운행에 있어 그들이 경험한 대체 기관사의 운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이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로 병행하였으며, 관련 국가재난사태 관련 학위논문 11편, 재난관리 및 철도파업에 관련한 국내 문헌자료 12편을 선행연구 하였으며 특히, 정부 및 국방부의 간행물 8편과 국가 공무원법 등 법률 4편, 언론매체 보도기사 등을 통해 문헌고찰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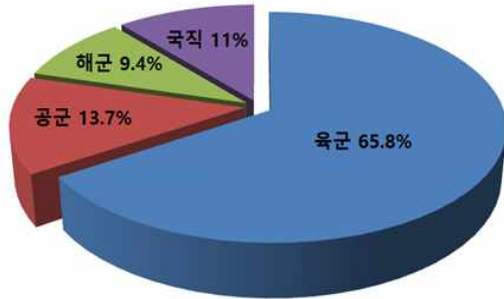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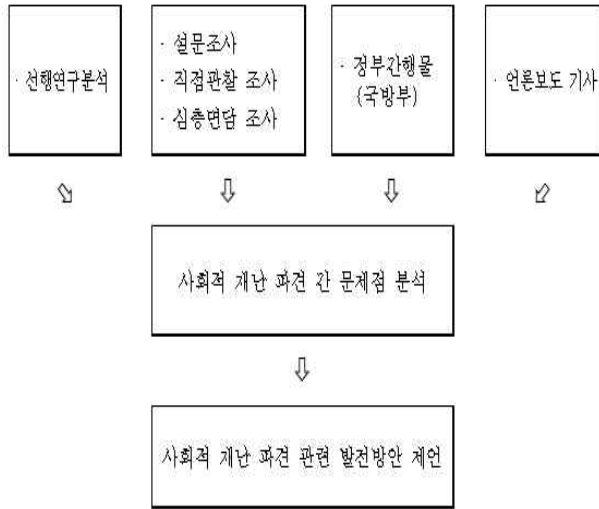
특히, 본 연구자는 2016년 사회적 재난에 포함되는 '철도파업' 대체 기관사 임무에 실제 투입되어 연구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관찰하였으며, 본 연구자 역시 철도파업 간 대체 기관사 임무를 수행하며 본 연구의 본질에 대해 직접적으로 72일 동안 정신적·육체적으로 경험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연구자 본인을 포함한 군 대체 기관사 117명(육군 77명, 공군 16명, 해군 11명, 국직 13명) 중, 설문 및 인터뷰 대상 가능한 대상자로 육군 25명(80.6%), 공군 5명(16.1%), 해군 1명(3.2%)를 대상으로 군 대체 기관사 파견 전·중·후 그들의 심리상태와 제한 사항 등을 통해 심층면담 및 관찰,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문헌고찰과 설문작성을 바탕으로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국가재난 사태의 개념과 관련 법률을 분석하였으며, 국가재난사태에 대한 분석으로 군이 지원하는 사례에 대해 연도순으로 나열하여 대민지원, 자연·사회적 재난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연구분석 틀

Table 1. research and analysis framework



1. 연구 대상자

Figure 1. Research target person

IV. 연구결과

대체 기관사들의 육체적 스트레스 요인으로서는 근골격 계통의 질환 및 작업 관련성 질환인 심혈관 계통의 질환으로 조사되었다. 육체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결과로 ‘어깨 결림과 요통이 자주 생긴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30.0%가 응답하였고, 그렇다고 50.0%가 대답하여 다소 높은 분포를 나타냈고, ‘불면증이나 두통이 자주 생긴다’에 대해서는 47.5%가 ‘그렇지 않다’를 보여주며, 27.5%의 기관사가 ‘그렇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눈이 자주 피로하다.’는 것과 ‘변비, 설사, 소화불량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는 항목에서는 각각 77.5%와 80.0%가 ‘그렇다’고 응답해서 이 사항이 신체적 스트레스 원인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 승무 시스템인 경우 긴급 상황 발생시 단독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심리적인 부담과 가중되는 업무량 과다로 인한 운행업무에 관한 집중력 저하 등 대체 전동차 기관사에게 많은 주의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 중, 심각한 문제는 직무 스트레스가 과도한 경우 기관사는 높은 불안감과 더불어 긴장감으로 인하여 고도의 정신적·신체적으로 부담이 자연스럽게 전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도의 불안감과 불안한 심리상태로 인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혈압과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는 신경계통이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어깨결림, 눈의 피로, 두통과 불면증, 소화불량 등이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사의 직무 특성 스트레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양한 요인들이 도출되는데 그 중, 선로와 신호, 차량 상태, 운행 정보 등에서 많은 집중력과 주의력을 필요하며, 심각하게 불규칙한 근무시간에 의한 피로누적과 수면부족, 운행 중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열악한 운전실 환경 등에서 대체운행 전동차 기관사 임무의 각종 스트레스를 복합적으로 경험하였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전·평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원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동원 시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제76조 2항에 따라 “중대한 교전 상태 시”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에만 동원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 전시 전투준비태세 유지뿐 아니라 평시 국가재난사태에서도 인적·물적 자원의 부분 동원이 어려울 따름이다.

첫째, 국가비상사태 관련 법적 및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비상시 국가 동원과 관련된 법령은 헌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전시자원 동원법령/명령,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병역법, 계엄법, 징발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관련 법령은 제도와 절차적인 차원에서 서로 상충하거나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에서 있어서

보호한 점이 많다. 전시 동원이나 평시 자원 동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동원 관계 법령상 상호 연계성이 제한되는 부분을 개선할 소요가 있다.

평시 재난이나 위기와 관련해서 현행 법령상으로 필요한 물자나 민방위 인력 등을 일부 동원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39조)이 있으나 그 실효성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더불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평시 준비법에 따라 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중점을 가지고 계획을 작성하며 훈련하고 물자를 비축하는 등에 있어 제도적 한계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둘째, 현역 복무 중인 병사 중 관련 학과 인원을 조기 선별 및 별도 관리하여 수송 분야 및 국가기반체계 마비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다. 현재 철도 관련 학과가 운영되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6개교(경북전문대, 경북보건전문대, 대원대, 순천제일대, 우송정보대, 카톨릭상지대), 일반대학 6개교(경일대, 배재대, 송원대, 한국교통대 의왕캠퍼스, 우송대, 동양대), 대학원 6개교(경일대 일반대학원, 한국교통대 일반/교통대학원, 우송대 일반/철도/철도 특성화 대학원, 동양대 일반대학원, 한양대 공학대학원,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등이 있고, 이러한 학과의 재학생을 지원병 개념으로 모집하여 별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합하면, 전통적 안보에서 벗어나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공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동원 체제 관계 법령, 비상대비 조직, 동원 절차 등을 재검토하여 국가위기관리체계 확립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S. T. Kim, A master's degree at Kyonggi University, 2013.

※ 이 논문은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지원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됨.

References

- [1]. G. S. Wi & M. H. Baek & G. J. Yang & G. G. Yang(2009), Korea's Response System to Disaster Sites, pp. 11.
- [2]. D. W. Lee, Ph.D. thesis of Sungkyunkwan University, 2019.
- [3]. J. W. Lee, Ph.D. thesis of Keimyung University, 2013.